

閩語 雙尾韻에 대한 考察*

李海雨**

<目次>

I. 이끄는 말	2. 福州語 雙尾韻의 發生과 變化
II. 閩語 雙尾韻의 分布와 韓日越 漢字音과의 比較	IV. 閩語 雙尾韻 音節構造의 內部 變化
1. 閩語 雙尾韻의 分布	1. 鼻音化 現象
2. 閩語 雙尾韻과 韓日越 漢字音과의 比較	2. 舌尖音化 現象
III. 閩語 雙尾韻의 音韻史的 考察	3. 入聲韻尾의 脫落
1. 閩語 雙尾韻과 中古音의 比較	V. 맺는 말

I. 이끄는 말

閩語는 여타 중국 방언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음운 특징을 지닌 독특한 중국 방언이다. 그 가운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雙尾韻’도 고대음이나 여타 중국 방언군에서 찾아보기 힘든 음절구조이다. 쌍미운이란 용어는 우리에게 그리 친숙하지 않은 음운학 용어로 福州語 연구로 유명한 陳澤平이 사용하고 있다.¹⁾ ‘雙尾韻’은 말 그대로 ‘두 개의 韻尾를 지닌 韻’이란 뜻으로 一例로 福州語 ‘森’[seij]에서와 같이 주요모음 [e] 뒤에 두 개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우석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1) 陳澤平, 《福州方言研究》(福州: 福建人民出版社出版發行, 1998), 13쪽 참조.

의 운미 [i]와 [ŋ]이 뒤따르는 음절구조와 같은 것이다. ‘雙尾韻’ 내부는 일반적으로 ‘모음운미 + 자음운미’로 구성된다.

閩語 가운데 閩東語에 속하는 福州語의 경우 [-eiŋ, -ouŋ, -øyŋ, -eiʔ, -ouʔ, -øyʔ] 등의 운모에서 주요모음 뒤에 위치한 [-iŋ, -uŋ, -yŋ, -iʔ, -uʔ, -yʔ]가 바로 쌍미운에 해당된다. 普通話의 경우 운모 구조는 ‘(개음)+주요모음+(운미)’로 주요모음 뒤에 [-i, -u, -n, -ŋ] 가운데 하나만 韻尾에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면 이들 閩語의 쌍미운은 매우 독특한 음절 구조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雙尾韻’ 구조는 모든 중국어 방언의 근간이 되는 中古音뿐만 아니라 기타 중국의 현대 방언에서도 잘 나타나지 않는 음절구조이다. 그러므로 閩語의 ‘雙尾韻’에 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과제가 될 수 있지만, 寡聞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전문적이고 전반적인 연구는 全無한 실정이다.²⁾

본고에서는 雙尾韻이 閩語 內部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韓日越 한자음에서도 쌍미운의 흔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필 것이며, 음운사적으로 ‘雙尾韻’이 閩語에서 언제 형성되었고 어떻게 현재까지 발전되어 왔는가를 고찰하기 위해 16세기 福州語의 음운 체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현존하는 最古의 閩語 韻書인 《戚林八音》(蔡士泮·陳他 編纂)과 19세기의 福州語를 반영하는 《The Alphabetic Dictionary in the Foochow Dialect》(Maclay, R.S. and C. C. Baldwin 공동 편찬)을 참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운모 가운데 운미 부분만 연구의 대상이 되므로 각 방언의 성조 표기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2) 黃金文, 《方言接觸與閩北方言演變》(臺北: 國立臺灣大學文史叢刊), 2001, 274-279쪽에서 閩北方言의 [-aiŋ]에 대해 일부 고찰하였으나 민어의 쌍미운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II. 閩語 雙尾韻의 分布와 韓日越 漢字音과의 比較

1. 閩語 雙尾韻의 分布

閩語는 내부적으로 閩北, 閩東, 閩中, 莆仙, 閩南 등 대체로 다섯 구역으로 크게 나뉜다.³⁾ 鼻音韻尾의 雙尾韻은 민어 가운데 莆仙 구역을 제외한 閩北, 閩東, 閩中, 閩南 네 구역에 나타난다. 그 가운데 閩北方言에 속하는 建甌語, 建陽語, 松溪語에 가장 발달되었고, 閩南語에는 大田語의 酸 [uiŋ] 이외에는 다른 음질이 보이지 않는다. 入聲韻尾의 雙尾韻은 閩東과 閩南 두 구역에만 나타나며, 그 가운데 閩東方言의 福州語와 古田語에 가장 많이 발달하였고 閩南方言의 廈門語에는 白 [uiʔ]만이 나타난다. 그 밖의 閩語에서는 入聲韻尾의 雙尾韻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鼻音韻尾와 入聲韻尾를 모두 포함하는 雙尾韻이 고루 빈번하게 출현하는 방언은 閩東 구역의 福州語이다. 아래는 閩語 가운데 雙尾韻이 나타나는 방언점을 비음운미와 입성운미로 나누어 열거한 것이다.

(1) 鼻音韻尾

	eiŋ	ieŋ	ueŋ	yeŋ	aiŋ	uaiŋ	øyŋ	ouŋ	ɔiŋ	uiŋ	yiŋ
閩東 福州:	燈 eiŋ				塾 aiŋ		東 øyŋ	缸 ouŋ			
古田:	燈 eiŋ						冬 øyŋ				
閩南 大田:										酸 uiŋ	
閩中 永安:	邊 eiŋ	扇 ieŋ		船 yeŋ							
沙縣:	丁 eiŋ	英 ieŋ		雲 yeŋ		窓 øyŋ	通 ouŋ				
閩北 建甌:	音 eiŋ	延 ieŋ		恩 aiŋ	販 uaiŋ	雲 øyŋ		安 uiŋ	彎 yiŋ		
建陽:	雲 eiŋ	先 ieŋ	煩 ueŋ	全 yeŋ	丁 aiŋ			停 ɔiŋ			

3) 張光宇, 《切韻與方言》(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0) 265쪽과 陳章太·李如龍, 《閩語研究》(北京: 語文出版社, 1991), 1-2쪽 참조. 張振興(1985: 173)은 閩語를 ① 閩南區, ② 莆仙區, ③ 閩東區, ④ 閩北區, ⑤ 閩中區, ⑥ 瓊文區, ⑦ 邵寧區 등 7개 구역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松溪: 平 eiŋ 延 ieŋ 分 ueiŋ

中 øyŋ

(2) 入聲韻尾

eiʔ aiʔ øyʔ ouʔ uiʔ

閩東 福州: 吉 eiʔ 八 aiʔ 或 øyʔ 滑 ouʔ

古田: 八 eiʔ 北 øyʔ

閩南 廈門: 白 uiʔ

위에서 보듯이 민어에 나타나는 鼻音韻尾의 雙尾韻은 모두 설근비음운미 [-ŋ]으로 끝맺으며, [-m]이나 [-n]으로 끝나는 운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입성운미의 경우 喉塞音 [-ʔ]에서만 발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음운미로 끝나는 경우 11가지 음절이 있지만 [Viŋ], [Vyŋ], [Vuŋ]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압축이 된다. 그 가운데 [Viŋ] 형태가 가장 많아 무려 [eiŋ, ieŋ, ueiŋ, yeiŋ, aiŋ, uaiŋ, oiŋ, uiŋ, yiŋ] 등 9가지 음절이 나타나며, [Vyŋ]와 [Vuŋ] 형태는 각각 [øyŋ]와 [ouŋ] 한 음절만 나타난다. [Viŋ] 유형에 해당되는 주요모음은 [a, e, ɔ, u, y] 등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 등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Vyŋ]와 [Vuŋ] 유형에는 주요모음이 圓脣이면 모음운미도 圓脣인 [ø]와 [o]만이 나타난다. 이는 발화 가운데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back]인 주요모음 [ø]은 [-back]인 모음운미 [y]를 취하고, 주요모음이 [+back]인 [o]는 같은 [+back]인 모음운미 [u]를 취하고 있다.

入聲韻尾의 雙尾韻은 [eiʔ, aiʔ, øyʔ, ouʔ, uiʔ] 등 5개 음절이 나타나 鼻音韻尾에 비해 그 음절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이들 입성운미는 [Viʔ], [Vyʔ], [Vuʔ] 등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Viʔ] 형태의 주요모음은 [a, e, u]로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이 각각 하나씩 나타나며, [Vyʔ]는 前舌圓脣中母音 [ø], [Vuʔ]는 後舌圓脣中母音 [o]와 결합한다. 입성운미 쌍미운과 비음운미 쌍미운의 형태는 [Viŋ]:[Viʔ], [Vyŋ]:[Vyʔ], [Vuŋ]:[Vuʔ]와 같이 상호 정연한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2. 閩語 雙尾韻과 韓日越 漢字音과의 比較

梗攝에 속하는 일부 韓日越 漢字音도 閩語의 [-ViC]와 유사한 음절구조를 지니고 있다. 중고음 가운데 자음운미를 지닌 ‘通江梗曾宕山臻深咸’攝 가운데 梗攝만이 韓日越 漢字音에서 쌍미운의 음절구조 흔적이 발견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아래는 梗攝에 해당되는 韻에 대해 閩語 가운데 쌍미운이 발달한 福州語 및 建甌語와 韓日越 한자음을 비교한 것이다.

攝	韻尾	等韻	福州	建甌	韓國	越南	日本
梗	陽聲	二庚	eiŋ	aiŋ	ʌiŋ	aŋ	au/ei
		二耕	eiŋ	eiŋ	ʌiŋ	aŋ	au
		三淸	eiŋ	eiŋ	jəŋ	ɪŋ	ei
		四靑	eiŋ	eiŋ	jəŋ	ɪŋ	ei
入聲	二陌	aiʔ	ɛ	ʌik	ac	aku/eki	
	二麥	aiʔ	ɛ	ʌik	ac	aku	
	三昔	eiʔ	iaʔ	jək	ic	eki	
	四錫	eiʔ	i	jək	ic	eki	

위의 한국 한자음은 중세국어 한자음을 바탕으로 재구한 것으로 예를 들어 梗攝 陽聲韻尾(鼻音韻尾) 二等에 속하는 庚韻 ‘羹’字는 羹[kʌiŋ], 耕韻 ‘莖’字는 羹[kʌiŋ]이며, 入聲韻尾 陌韻 ‘客’字 𪛗[kʌik] ‘核’字 𪛗[hʌik]와 같다.⁴⁾ 이들 음절은 모두 閩語의 쌍미운과 같은 [-ViC] 구조를 갖고 있다. 물론 현재 한국 한자음에는 ‘羹[kæŋ]’, ‘客[kæk]’, ‘核[hæk]’과 같이 단음화되어[-æŋ/-æk]의 음절구조로 변화였다. 월남 한자음은 양성운미에 대해 口蓋鼻音 [-ŋ]과 입성운미에 대해 口蓋破裂音 [-c]를 지니고 있어 단순히 설근음 [-ŋ/-k]로 끝나는 것과 다르다. 즉 자음운미 앞에 전설모

4) 중세 한국 한자음의 轉寫에 있어서 外轉 속하는 주요모음은 일반적으로 ‘ㄱ (長音 [a] 계통)’으로 표기되지만 梗攝은 ‘· (短音 [ʌ] 계통)’으로 표기한다.

음이 [i]가 덧붙여진 [-iŋ/-ik]로 끝맺는 민어의 쌍미운과 같이 [+前舌性]을 지닌 유사성이 있다. 일본 한자음의 경우 설근비음운미 ‘曾宕江通’ 네攝에 대해 [-u]로 발음되고 입성운미는 [-ku]로 발음되지만 위의 예에서 보듯이 梗攝은 유독 [-i/-ki]로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한중일월 한자음의 특이한 현상으로 인해 일찍이 풀리블랭크(Pulleyblank)는 타 언어학자들과는 달리 梗攝에 대한 중고음 음가를 [-aajp/-aaik]로 재구하였다.⁵⁾

III. 閩語 雙尾韻의 音韻史的 考察

1. 閩語 雙尾韻과 中古音의 比較

(1) 閩語 雙尾韻과 中古音 韻尾의 對應關係

쌍미운의 역사적인 변천을 살피기 위해 먼저 현대 중국방언의 기원을 이루고 있는 중고음과의 대응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쌍미운은 윗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음운미는 [Viŋ], [Vyŋ], [Vuŋ] 등 세 형태로 압축된다. 비록 閩語 쌍미운은 설근비음운미 [-ŋ]만 존재하지만 중고음을 기준으로 볼 때 아래와 같이 [-ŋ] 운미를 지니는 ‘通·江·曾·梗·宕’攝, [-n] 운미를 지니는 ‘山·臻’攝, [-m] 운미를 지니는 ‘深·咸’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中古音韻尾	攝	韻	例字	廈門	潮州	福州	建甌
- ŋ	通	東	東	tɔŋ	tɔŋ	tɔŋ	tɔŋ

5) Pulleyblank, E.G. "Late Middle Chinese," *Asia Major* 15:237, Pulleyblank, E.G.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84: 118-119 참조. 한국 학자 朴炳采(1971:168-9)는 梗攝의 중고음에 비추어 한국어 한자음은 중고음의 핵모음 [-ǎ/-ɒ]와 운미 [-ŋ/-k] 사이에 滑走音的인 [-i-]가 개입되었다고 보면서 중국어 중고음의 梗攝韻尾 [-ŋ/-k]는 원래 口蓋的인 성질을 내포한 [-iŋ/-ik]와 같을 것이라 말해 Pulleyblank와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taŋ白	taŋ白	tøyŋ	
	江江雙	sɔŋ文	saŋ	søyŋ	sɔŋ
		siaŋ白			
	曾登朋	pɪŋ	phɛŋ	peɪŋ	paɪŋ
	梗青瓶	pɪŋ文	phɛŋ文	piŋ	paɪŋ
		paŋ白	paŋ白		
	宕唐航	haŋ	haŋ	xouŋ	ɔŋ
-n	山先先	siɛŋ文	siŋ文	sieŋ文	siŋ文
		siŋ白	soɪ白	seiŋ白	saiŋ白
	臻真人	liŋ文	ziŋ文	lɪŋ文	neiŋ
		laŋ白	naŋ白	nøyŋ白	
-m	深侵森	sim	siəm	seiŋ	saiŋ
	咸添謙	khiam	khiam	khieŋ	khieŋ文
					kheɪŋ白

위에서 보듯이 민어의 쌍미운은 중고음의 [-m, -n, -ŋ] 등 모든 비음운미에 나타나며, 閩東의 福州語와 閩北의 建甌語에 발달되었지만 閩南의 廈門語와 潮州語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비록 중고음의 운미에는 [-ŋ, -n, -m]이 있지만 福州語와 建甌語에서 모두 설근비음운미 [-ŋ]으로 합병되었으므로 쌍미운도 [-ŋ]에서만 나타나게 되었다. 한 한자에 문언음과 백화음이 있을 때 ‘先’에 대한 福州語의 [sieŋ文] [seiŋ白], 建甌語의 [siŋ文] [saiŋ白] 경우와 같이 쌍미운은 문언음보다는 백화음 쪽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현재 閩語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最古의 자료는 《戚林八音》으로 이 韻書는 閩語 가운데 16세기의 福州語를 반영하고 있다. 중고음의 비음운미 [-m, -n, -ŋ]은 《戚林八音》에는 모두 [-ŋ] 하나로 합병되어 줄곧 현대까지 이르고, 중고음의 입성운미 [-p, -t, -k] 가운데 [-p, -t]는 [-k]로 합병되고 [-k]의 일부는 [-ʔ]로 약화되어 사실상 16세기에 이르러 복주어의 입성운미는 [-k, -ʔ] 두 개만 존재하게 되었다. 19세기의 복주어를 반영하는 《The Alphabetic Dictionary in the Foochow Dialect》(1870)에

서도 입성운미는 [-k, -ʔ]를 유지하다가 현대 복주어에 이르러서는 [-ʔ]로 합병되었다. 하지만 쌍미운의 현상은 19세기 복주어에서 [-ŋ, -k]를 지닌 운미에서만 발생하였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k]가 [-ʔ]로 약화되면서 결국 [-ŋ, -ʔ] 자음운미에서 발생하고 있다.

(2) 閩語 雙尾韻과 中古音의 音節構造 比較

현대 중국 방언의 기원이 되고 있는 중고음 가운데 梗攝에 대해 풀리블랭크(Pulleyblank)는 매우 이례적으로 雙尾韻이 존재하는 [-aajŋ/-aaik]으로 재구하였다. 기타 여러 학자들은 梗攝에 대해 쌍미운을 인정하지 않은 [-aŋ/ -ak] 혹은 [-eŋ/ -ek]을 제시하고 있다.⁶⁾

일반적으로 중고음의 음절구조는 가장 길게는 'CV₁V₂V₃E'(여기서 C(consonant)는 자음, V(vowel)는 모음, E(ending)는 운미를 의미)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 가운데 주요모음은 V₃이다. 이 주요모음을 중심으로 앞에 위치하는 V₁V₂는 모두 介音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中古音 鐘韻의 [juoŋ], 齊韻의 [iuei], 仙韻의 [juæŋ], 淸韻의 [juæŋ] 등에서 [j]는 三等, [i]는 四等の 음가를 대변하고, [u]는 合口을 나타내는 음가로 모두 주요모음 앞에 위치하여 介音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중고음에는 雙尾韻을 발견하기 힘들다.

現代 閩語의 음절구조도 중고음과 같이 가장 길게는 'CV₁V₂V₃E'의 모습을 지니어 외형상 중고음과 똑같은 음절구조를 갖는다. 하지만 중고음에서는 V₃가 주요모음으로 할당되지만 현대 민어에서는 오히려 앞의 V₂가 주요모음이 된다. 예를 들어, 建陽語의 先 [sieiŋ], 煩 [pueiŋ], 全 [tsyeiŋ] 등의 발음에서 주요모음 [e]를 중심으로 뒤에 위치한 [-iŋ]는 운미에 해당되며, 앞에 위치한 [i, u, y]는 介音이다.⁷⁾

6) 梗攝의 운모에 대해 周法高와 陸法言은 [-aŋ / -ak], karlgren, 王力, 董同龢 등은 [-eŋ/ -ek]으로 각각 재구하고 있어 중고음의 쌍미운 존재에 대해 대다수 학자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7) 음성학적으로 음절구조의 발음 요소에서 주요모음은 나머지 요소보다 共鳴度

雙尾韻은 주요모음과 운미자음 사이에 모음운미가 첨가되어 ‘주요모음+모음운미+자음운미’의 음절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중고음의 脂韻 [juei], 微韻 [juəi], 祭韻 [juəei], 보통화의 快 [khuai], 調 [thiao], 又 [you], 爲 [wei], 現代 福州語의 乖 [kuai]와 같이 비록 4개 혹은 3개의 모음이 하나의 음절에 있더라도 주요모음이 모음운미 바로 앞에 존재하여 쌍미운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2. 福州語 雙尾韻의 發生과 變化

현존하는 韻書 가운데 最古의 閩語 음운체계를 반영하는 《戚林八音》은 閩東 구역에 속하는 福州語의 16세기 음운을 나타내주고 있다. 본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는 ‘雙尾韻’의 발생과 그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戚林八音》의 음가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戚林八音》의 反切下字 韻目에는 36개가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현재 복주어의 ‘雙尾韻’과 관련된 韻目を 추적해보면 ‘燈, 釘, 東, 賓, 春, 銀’ 등 6개의 운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들 운의 재구음을 살펴보면 아직 16세기에는 ‘雙尾韻’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중국 운서 이외에 방언의 역사를 살피는데 또한 도움을 주고 있는 자료가 19세기 서양인들이 기록한 방언 자료인데, 당시 복주어의 모습을 반영한 자료로 가장 널리 인용되는 Maclay, R.S.와 C. C. Baldwin이 공동 편찬한 《The Alphabetic Dictionary in the Foochow Dialect》(1870년)가 있다.⁸⁾ 이 사전에는 현재 복주어 ‘雙尾韻’의 모습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가 가장 높다. 저모음, 중모음, 고모음 순으로 그 공명도가 높아서 普通話에서도 이중모음 혹은 삼중모음으로 구성된 음절구조일 경우 a>e,o>i,u,ü(y)의 순으로 주요모음을 정하는 것과 같다. 민어에서도 이중모음 혹은 삼중모음으로 이루어진 음절일 경우 주요모음은 주로 [a, e, o, ø]로 이루어지며, 쌍미운에서 모음 부분은 주로 고모음인 [i, u, y(ü)]가 충당된다.

8) 19세기 중국 방언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는 선교나 외교 활동을 위해 각 지역 방언을 기록한 서양인들의 사전이나 회화서적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알 수 있다.

16세기의 복주어를 반영한 《戚林八音》재구음과 19세기의 복주어를 반영하는 《The Alphabetic Dictionary in the Foochow Dialect》(1870) 재구음을 종합하여 16세기, 19세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는 福州語의 ‘雙尾韻’ 음운 변화 과정을 陽聲韻과 入聲韻으로 나눠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⁹⁾

(1) 陽聲韻

16세기	19세기	현대
燈 eŋ	→ eiŋ/aiŋ	→ eiŋ/aiŋ
釘 oŋ	→ ouŋ/auŋ	→ ouŋ/auŋ
東 æŋ	→ øŋ/aøŋ	→ øyŋ/ɔyŋ
賓 iŋ	→ iŋ/eiŋ	→ iŋ/eiŋ
春 uŋ	→ uŋ/ouŋ	→ uŋ/ouŋ
銀 yŋ	→ yŋ/øyŋ	→ yŋ/øyŋ

(2) 入聲韻

16세기	19세기	현대
燈 ek	→ eik/aik	→ eiʔ/aiʔ
釘 ok	→ ouk/auk	→ ouʔ/auʔ
東 æk	→ øk/aøk	→ øyʔ/ɔyʔ
賓 ik	→ ik/eik	→ iʔ/eiʔ
春 uk	→ uk/ouk	→ uʔ/ouʔ
銀 yk	→ yk/øyk	→ yʔ/øyʔ

위의 표에서 보듯이 복주어의 ‘雙尾韻’은 ‘燈, 釘, 東, 賓, 春, 銀’ 등 6개 운의 비음운,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입성운에서만 16세기에서 19세기

9) 《戚林八音》의 재구음은 陳澤平 《福州方言研究》(福州: 福建人民出版社出版發行, 1998), 90쪽을 참조하였으며, 《The Alphabetic Dictionary in the Foochow Dialect》(1870)의 재구음에 대해서는 陳澤平, 《閩語新探索》(上海: 上海遠東出版社, 2003), 48쪽을 참조하였다.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복주어의 ‘雙尾韻’은 이미 19세기에 형성되었으며 현대에 이르러 설근운미 [-k]가 약화된 喉塞韻尾 [-ʔ]로 변한 것 이외에 기타 운모에는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戚林八音》의 燈, 釘, 東, 賓, 春, 銀 등 6개韻은 비음운와 입성운 모두 VC(주요모음+자음운미) 구조를 지녔지만 19세기의 《The Alphabetic Dictionary in the Foochow Dialect》(1870)에는 주요모음과 자음운미 사이에 하나의 모음운미가 더 첨가된 VVC(주요모음+모음운미+자음운미) 구조가 나타났다. 즉, 모음운미의 새로운 첨가로 말미암아 운미가 두 개가 되는 ‘雙尾韻(모음운미+자음운미)’ 형태의 음절구조가 새롭게 탄생하였다.

燈, 釘, 東, 賓, 春, 銀 등 6개韻이《戚林八音》에서는 비음운와 입성운 모두 VC(주요모음+운미) 구조를 지니다가 19세기에 이르러서는 VVC(주요모음+모음운미+자음운미) 구조로 확장된 예를 들면, 鼻音韻에서 燈 eŋ → eiŋ/aiŋ, 釘 oŋ → ouŋ/auŋ, 東 æŋ → øŋ/aøŋ, 賓 iŋ → iŋ/eiŋ, 春 uŋ → uŋ/ouŋ, 銀 yŋ → yŋ/øyŋ으로 변화되고, 入聲韻에서 燈 ek → eik/aik, 釘 ok → ouk/auk, 東 æk → øk/aøk, 賓 ik → ik/eik, 春 uk → uk/ouk, 銀 yk → yk/øyk 등과 같다. 이렇듯 주요모음과 자음운미 사이에 재차 모음운미가 첨가된 ‘雙尾韻’ 음절구조가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 가운데 ‘東’韻은 19세기에까지 변화 단계가 약간 느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æŋ(16세기) → øŋ/aøŋ(19세기) → øyŋ/øyŋ(현재)에서 보듯이 øŋ(19세기) → øyŋ(현재)의 현상은 19세기에서 현재에 이르러 발생하게 되었다.

IV. 閩語 雙尾韻 音節構造의 內部 變化

1. 鼻音化 現象

建陽, 建甌, 潮陽, 潮州, 晉江 지역에서 先韻에 속하는 한자들의 음운 변화를 살펴보면 ‘雙尾韻’의 비음운미가 탈락되면서 비음화 현상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아래 예를 보자.

例字	廈門	建陽	建甌	潮陽	潮州	晉江	永安
肩	kian文 kiŋ白	kaiŋ	kaiŋ	kaī	koī	kuī	kī
先	sian文 siŋ白	saiŋ	saiŋ	saī	soī	suī	seŋ
千	tshian文 tshij白	tshaiŋ	tshaiŋ	tshaī	tshoī	tshuī	tshen

위의 예에서 보듯이 각 방언서 운모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나름대로 일정한 음운 발전과정을 겪으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먼저 中古音 先韻의 韻尾를 보존하고 있는 廈門 [-an]은 가장 오래된 어음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다가 설첨비음운미 [-n]이 建陽과 建甌에서와 같이 설근비음운미 [-ŋ]으로 변한 후 潮陽, 潮州, 晉江, 永安에서와 같이 [-ŋ]의 탈락과 더불어 앞의 모음운미 [i]를 비음화 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어 [i]가 되었다. 고모음 [i]는 또한 저모음인 주요모음 [a]를 고모음화 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즉, 潮州語에서는 중모음 [o]로 변하게 만들고, 晉江語에서는 더 나아가 고모음인 [u]까지 높아지게 만들었다. 永安語의 경우 ‘肩’ [kī]에서 보듯이 강력한 [i]가 모든 운모를 잠식시켜 홀로 남는 예도 발견된다. 결국 이들 운모의 변화과정은 an(廈門) → aiŋ(建陽, 建甌) → ai(潮陽) → oi(潮州) → ui(晉江) → i(永安)으로 층차적으로 비음화와 고음화의 과정을 밟

왔고 볼 수 있다.

일부 閩南方言은 아래 예를 보듯이 山攝의 先韻(蓮千肩 等 세 한자)과 山韻(間閑揀 等 세 한자)은 合韻되고 있으며 [-n] 운미가 타락되면서 앞의 운미가 鼻音化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蓮	千	肩	間	閑	揀
潮陽	naĩ	tshaĩ	kaĩ	khaĩ	aĩ	kaĩ
潮州	noĩ	tshoĩ	koĩ	koĩ	oĩ	koĩ
泉州	nuĩ	tshuĩ	kuĩ	kuĩ	uĩ	kuĩ

위의 先韻과 山韻은 본래 [-ain]의 음절구조를 지니고 있다가 비음운미 [-n]의 탈락과 더불어 앞의 [i]가 비음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요모음 [a]가 潮州方言과 泉州方言에서는 고모음화된 [-oĩ]와 [-uĩ]로 실현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운미 [i] 고모음의 역행동화 작용으로 주요모음이 고모음화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같은 山韻에 속하지만 ‘山’과 ‘產’과 같은 한자는 廈門語와 潮州語에서 [suã]으로 발음되어 쌍미운 [-ViC] 음절구조의 흔적을 찾아내기 힘들다. 이에 대해 張光宇는 ain → aĩ → oĩ → uã의 변화를 겪어 형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⁰⁾

2. 舌尖音化 現象

山攝 先韻과 山韻의 비음운미는 -n → -ŋ의 방향으로 설근음화 현상이 일어났지만 梗攝의 靑韻(零亭 두 한자)과 曾攝 登韻(等層 두 한자)의 경우는 오히려 설근비음 [-ŋ]이 [-n]으로 설첨음화되는 현상이 아래와 같이 廈門方言에서 일어났다.

10) 張光宇, 《閩客方言史稿》(臺北: 南天書局有限公司, 1996), 185쪽 참조.

例字	廈門	潮州	福州	建甌
零	liŋ文 lan白	leŋ文 laŋ白	liŋ	laiŋ
亭	tiŋ文 tan白	teŋ	tiŋ	taiŋ
等	tiŋ文 tan白	teŋ文 taŋ白	teiŋ文 tiŋ白	taiŋ
層	tsiŋ文 tsan白	tsaŋ	tseiŋ	tsaiŋ

위에서 보듯이 白話音의 경우 주요모음이 저모음 [a]로 고대음을 보존하고 있지만 文音音의 경우는 이미 고음화된 [i]로 변하였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중고음에서 본래 설근비음 [-ŋ]을 지닌 靑韻과 登韻이 廈門語의 백화음에서 설침비음 [-n]으로 변해 [-an]으로 발음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aiŋ] → [an]이라고 볼 수 있다. 즉, [-back]의 자질을 지닌 모음운미 [i]의 영향으로 [+back]의 자질을 지닌 설근비음운미 [-ŋ]이 [-back]으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入聲韻尾의 脫落

山韻에 속하는 入聲字 ‘拔, 八’과 先韻에 속하는 ‘節, 截’은 아래와 같이 각 方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음이 나타나고 있다.

例字	福州	潮州	廈門	建甌
拔	paʔ文 peiʔ白	puek文 poiʔ白	puat文 puiʔ白	pa文 pai白
八	paiʔ	poiʔ	pat文 pueʔ白	pai
節	tsieʔ文 tsaiʔ白	tsak文 tsoiʔ白	tsiet文 tsaʔ白	tsie文 tsai白

截 tsei? tsoi? tsiet文 tsie文
tsa?白 tsai白

위의 예에서 보듯이 ai?(福州) → oi?(潮州) → ui?(廈門)와 같이 주요모음이 점점 고음화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어음층차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建甌語에서는 ‘拔’ [pai] (白話音), ‘八’ [pai], ‘節’ [tsai] (白話音), ‘截’ [tsai] (白話音)에서처럼 입성운미가 아예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Vik] 입성운미 탈락에 관해서 建陽方言 가운데 ‘敵’ [toi], ‘析’ [soi], ‘剔’ [hoi] 등은 중고음 입성 [-k]가 [-ʔ]로 약화되었다가 재차 탈락된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

V. 맺는 말

현대 중국 방언 가운데 閩語에서만 나타나는 ‘雙尾韻’은 주요모음 뒤에 모음운미와 자음운미가 뒤따르는 독특한 음절구조이다. 민어 가운데 鼻音韻尾의 雙尾韻은 閩北方言에 속하는 建甌語, 建陽語, 松溪語에 가장 발달되었고, 入聲韻尾의 雙尾韻은 閩東方言의 福州語와 古田語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쌍미운 가운데 비음운미에는 [-eiŋ, -ieŋ, -ueŋ, -yeŋ, -aiŋ, -uaiŋ, -øyŋ, -ouŋ, -ɔiŋ, -uiŋ, -yiŋ] 등 11개 운모가 나타나지만 [Viŋ], [Vyŋ], [Vuŋ]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축약된다. 입성운미에는 [-eiʔ, -aiʔ, -øyʔ, -ouʔ, -uiʔ] 등 5개 운모가 있으며 [Viʔ], [Vyʔ], [Vuʔ]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압축되어 결국, [Viŋ]:[Viʔ], [Vyŋ]:[Vyʔ], [Vuŋ]:[Vuʔ]와 같이 비음운미와 입성운미가 상호 정연하게 대응되고 있다.

閩語의 雙尾韻은 중고음의 [-ŋ] 운미를 지닌 ‘通·江·曾·梗·宕’攝, [-n] 운미를 지니는 ‘山·臻’攝, [-m] 운미를 지니는 ‘深·咸’攝 등 모든 운미자음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이들 운미자음은 민어의 쌍미운에서 설근 비음운미 [-ŋ]으로 합병되었다. 중고음의 음절구조 ‘CV₁V₂V₃E’로 4개 혹

은 3개의 모음이 나타날 수 있지만 주요모음 V₃를 중심으로 뒤에는 단지 하나의 운미만 존재하여 쌍미운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단지 梗攝에 대해 풀리블랭크(Pulleyblank)는 雙尾韻이 존재하는 [-aajŋ/-aaik]으로 재구하였으며, 한일월 한자음에서도 그러한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

閩語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最古의 자료이며 16세기의 福州語를 반영하고 있는 《戚林八音》에는 쌍미운이 나타나지 않으며, 19세기의 福州語를 반영하는 《The Alphabetic Dictionary in the Foochow Dialect》(1870)에야 비로소 쌍미운이 존재한다. 이로써 쌍미운은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閩語의 雙尾韻은 내부적으로 비음화, 설첨음화, 입성운미의 탈락 등 지속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쌍미운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參考文獻>

- 橋本萬太郎, <朝鮮漢字音と中古中國語高口蓋韻尾>, 《アジア. 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7:53-74, 1974.
- 董同龢, 《漢語音韻學》(第七版,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3.
- 박병채, 《古代國語의 研究》(서울: 고려대출판사), 1971.
-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 編, 《漢語方音字匯》(第二版; 北京: 文字改革出版社), 1989.
- 三根谷徹, 《越南漢字音の研究》(東京: 財團法人東洋文庫), 1972.
- 邵榮芬, <明代末年福州話的韻母和聲調系統>, 《音韻學研究》3: 351-377, 1994.
- 王力, 《漢語語音史》, 王力文集 第10卷(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80.
- 姚榮松, <《彙音妙悟》의音系及其鼻化韻母>, 臺灣師範大學 《國文學報》 17: 251-281, 1988.
- 劉曉南, 《宋代閩語音考》(長沙: 岳麓書社), 1999.

- 李如龍·王升魁 校注, 《戚林八音校注》(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01.
- 이해우, <《戚林八音》의 文白異讀字를 통해본 福州語의 時代層次 研究>
《中國語文學論集》 27: 103-120, 2004.
- _____, <《彙音妙悟》를 통해본 18세기 泉州 閩南 地域 白話音의 特徵>,
《中國言語研究》 21: 215-238, 2005.
- 林寒生, <《戚林八音》與《閩都別記》所反映的福州方音比較>, 《語言研究》
3: 114-121, 2000.
- 張光宇, 《切韻與方言》(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0.
- _____, 《閩客方言史稿》(臺北: 南天書局有限公司), 1996.
- 張振興, <閩語的分區(稿)>, 《方言》 3: 171-180, 1985.
- 陳章太·李如龍, 《閩語研究》(北京: 語文出版社), 1991.
- 陳澤平, 《福州方言研究》(福州: 福建人民出版社出版發行), 1998.
- _____, <十九世紀的福州音系>, 《中國語文》 5: 431-440, 2002.
- _____, 《閩語新探索》(上海: 上海遠東出版社), 2003.
- 黃金文, 《方言接觸與閩北方言演變》(臺北: 國立臺灣大學文史叢刊), 2001.
- Hashimoto, Mantaro J. "Retroflex Endings in Ancient Chinese," JCL
1.1: 183-207, 1973.
- Maclay, R.S. & C. C. Baldwin, 《The Alphabetic Dictionary in the
Foochow Dialect》, Methodist Episcopal Mission Press, 1870.
- Pulleyblank, E.G. "Late Middle Chinese," *Asia Major* 15: 197-239 and
16: 121-168, 1970.
- _____.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1984.

<Abstract>

Min(閩) dialect has the syllable structure of double ending that does

not share with the other Chinese dialects. Double ending means that both a high vowel and a consonant follow a main vowel such as [-eiŋ, -ieiŋ, -ueiŋ, -yeiŋ, -aiŋ, -uaiŋ, -øyŋ, -ouŋ, -ɔiŋ, -uiŋ, -yiŋ] and [-eiʔ, -aiʔ, -øyʔ, -ouʔ, -uiʔ]. This kind of syllable structure has highly developed in Northern Min dialect and Eastern Min dialect.

The syllable structure of double ending does not exist in Middle Chinese that retains the typical syllable structure of 'CV₁V₂V₃E'(V₃ represents the main vowel here). We can not find the double ending at the *Qilinbayin* (戚林八音), which reflects the Fuzhou(福州) dialect of the 16th century. It occurs at *The Alphabetic Dictionary in the Foochow Dialect* (1870), which reflects the Fuzhou(福州) dialect of the 19th century. Therefore, we can say that the double ending of Min dialect appeared between the 16th century and the 19th century. The double ending, however, is gradually disappearing because it undergoes nasalization, dentalization and omission of abrupt tone.

Key Words : Syllable structure, Double ending, Min(閩) dialect, Middle Chinese, Fuzhou(福州) dialect